

[ 바둑 ]

‘PO티켓 잡아라’ 4강 다툼 안갯속

■2007한국바둑리그

한국바둑리그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 전남 연고팀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모두 14라운드의 경기 가운데 9라운드를 소화한 7일 현재 광주KIXX는 4승5패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불씨를 살려가는 등 지난해 우승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반면, 신생팀인 전남 대방노블랜드는 1승8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포스트 시즌 바라볼 수 없게 됐다.

전반기 부진을 딛고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KIXX는 6승3패의 성적을 거둔 주장 이창호 9단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4위까지 주어지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고 있다.

김기용(4승2패), 박정상(4승4패) 등 나머지 멤버들도 비교적 양호한 성적으로 팀을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KIXX는 4위 울산다이어체를 비롯 7위 한계까지 무려 4점이 4승5패를 기록하고 있는 퍼달리는 중위권 싸움을 앞두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포스트 시즌 티켓을 거머쥐려면 최소 8승 이상을 거둬야 안전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KIXX는 남은 5경기 중 4경기를 쓸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전남 대방 노블랜드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주장인 박영훈의 부진(3승3패)이 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기대를 모았던 ‘신예돌풍’의 주인공 한상훈도 2승5패로 죽을



한국바둑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한계팀의 송태근(왼쪽)과 대방노블랜드 박영훈이 대국하고 있다. (사이버오로 제공)

광주 KIXX, 5게임중 최소한 4승 거둬야 4위

신생팀 전남, 1승8패 최하위...PO 진출 좌절

계다가 루이니아웨이가 1승5패로 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와일드카드도 팀에 합류한 윤성현(3패)은 물론 5지명 선수인 박지훈(4패)은 단 1승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개인 성적에선 이세돌이 8연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강동윤(7승1패), 김지석(7승2패), 유창혁(6승1패) 등이 선두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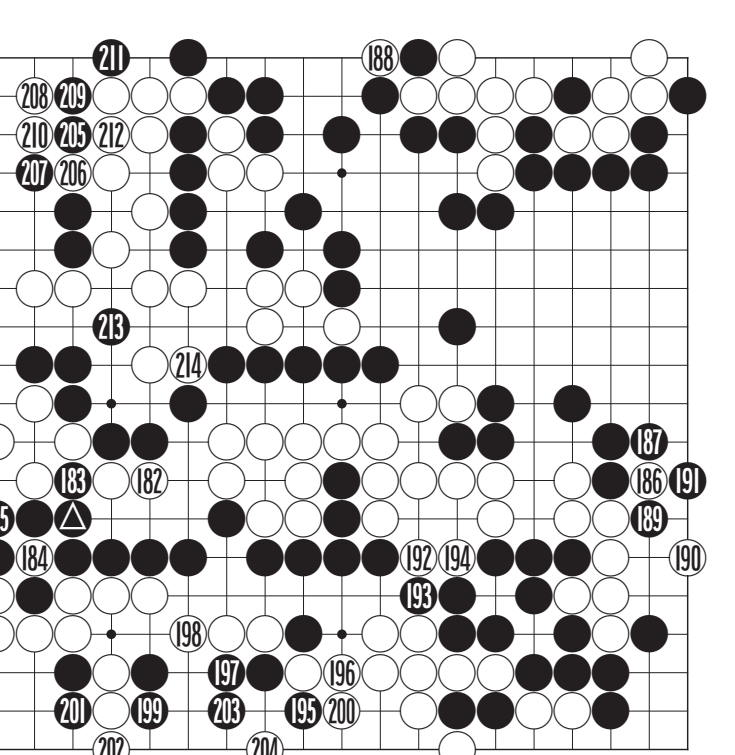
한편, 1, 2위 권은 양강체제가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란히 7승2패를 기록하고 있는 영남일보와 제일화재가 포스트 시즌을 예약하고 있기

Table with 5 columns: 순위, 팀, 승-패, 총승수. Lists the top 8 teams in the 2007 Korean Go League as of September 7th.

이세돌-뤼시허 남북장성배 맞대결. 이세돌 9단과 뤼시허 9단이 9일 남북장성배 맞대결을 펼친다.

제1회 광일배 허망한 역전극

개인전 준결승 1국 11보(182~214) 白 이창호 5단 (주)송림,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흑 ▲로 패를 해 소해서는 백이 이곳의 패 싸움에서 대실패. 형세가 기울어 역전된 국면이다.

이세돌-뤼시허 남북장성배 맞대결. 이세돌 9단과 뤼시허 9단이 9일 남북장성배 맞대결을 펼친다.

이세돌 9단과 뤼시허 9단이 9일 남북장성배 맞대결을 펼친다.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양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을 초청해 대국을 벌인 남북장성배는 양국 대표기사의 자존심을 건 싸움에서 관심을 모은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두 사람의 대국과 함께 양국 아마추어 16장이



학초배 우승자인 함영우(왼쪽) 아마 5단과 김동섭 아마 7단.

함영우·김동섭 “내가 아마 최강”

학초배 최강자전 주니어·시니어부 우승

함영우(20·서울) 아마 5단과 김동섭(59·경기도) 아마 7단이 지난 2일 경남바둑협회 대회장에서 열린 제34회 학초배 전국아마 최강자전에서 각각 주니어부와 시니어부 정상에 올랐다.

함 아마 5단은 이번 대회 주니어부 결승전에서 서유태 아마 5단을 185수만에 흑 불계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함 5단은 한국기원 바둑연구소 출신으로 우승상금 200만원과 함께 아마 6단증을 받았다.

시니어부 결승전에서는 김 아마 7단이 영원한 맞수인 서부길 아마 7단과 224수까지 가는 치열

한 접전 끝에 행운의 백 반집음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7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 7단은 지난 1996년 학초배 우승 등 전국대회 7번 우승, 2001년 준우승의 백전노장으로 18번인 탐라배 우승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다. 이번 학초배는 지난 대회와 달리 주니어부와 시니어부로 나눠 대회를 진행해 중장년 이상 아마 강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독특하게 아마주어대회에서 패자부활제를 도입, 재미를 더했다.

백홍석 VS 강동윤 ‘빅뱅’

신예연승최강전 결승 ‘슈퍼 루키’ 자존심 대결

‘신예 강타자’ 백홍석과 강동윤이 최강 신예의 자존심을 걸고 격돌한다.

백홍석과 강동윤이 최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7기 오스람코리아배 신예연승최강전 준결승전에서 나란히 결승에 진출, 10일부터 열리는 결승 3번기에서 반상을 마주한다.

강동윤 7단은 지난 달 제4기 왕중왕전 결승에 올라 이창호 9단을 2대1로 물리치고 생애 첫 본격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2005년 신예프로10결전과 신예연승최강전을 모두 거머쥐며 신예 최강으로 군림해왔다.

왕중왕전 우승으로 7단으로 승단한 강동윤은 신인왕전을 제외한 다른

신예기전 참가 자격을 상실, 내년부터는 출전자격을 가질 수 없다. 그만큼 의미있는 결실을 거두기 위한 결의가 남다르다. 백홍석 5단은 강동윤 7단에 이어 2006년 신예프로 10결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당시 백 5단은 삼성화재배 4강전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많은 바둑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이후 원익배 결승에도 진출하며 최상의 바둑실력을 선보였으며 올해 초 한국리그 주장으로 뽑혔다. 두 기사의 상대전적은 1승 1패로 호각세. 오스람코리아가 후원하는 신예연승최강전은 만25세 이하, 5단 이하의 기사들만 참가할 수 있다. 제한시간은 각자 5분 30초 3회. 우승상금은 2천만원(준우승 7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려대-와세다대 바둑 교류전. 최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열린 제1회 와세다대-고려대 바둑 교류전에서 양국 대학생들이 대국하고 있다. 고려대가 16대14로 승리. /연필뉴스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sub-sections: '대인동삼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첨단월세공인중개사', '합동법률경매(주)', '한일지도판매(주)', '현대공인중개사'.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